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며

실내악·피아노곡 등 집중 연주
25~27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신수경·박은식 등 16명 연주자 참여

올해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1873-1943)의 탄생 150주년을 맞는다. 많은 클래식 작곡가 가운데에서도 그의 곡들은 한국인의 정서와 잘 맞아 인기가 높으며 그의 삶과 음악을 담은 창작 뮤지컬 '라흐마니노프'도 인기리에 공연중이다.

특히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2번'은 2016년 KBS클래식 FM이 진행한 '우리가 사랑한 클래식'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고, 우수에 젖은 2악장의 멜로디는 에릭 칼덴, 셸린 디온 등이 부른 팝송 '올 바이 마이셀프'(All By Myself)에 삽입돼 많은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임윤찬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 당시 연주한 '피아노협주곡 3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라흐마니노프곡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연주회가 3일간 이어진다. 첫 날은 성악,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가 어우러진 실내악곡을 들려주며 나머지 이들은 7명의 남성피아니스트가 무대에 오른다.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가 25~2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



라흐마니노프



신수경



박은식



최현호

린다. 피아니스트 전남대 신수경 교수를 중심으로 최근 창단된 'Amich di piano·피아노의 친구'가 기획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25일 연주 레퍼토리는 피아노 3중주로 듣는 '엘리제 1번 G장조'(천민경·김민수·김형진)로 문을 열며 유명한 '보칼리제', '노래하지 마오, 아름다운 연인이여', '봄의 물결'을 윤하나(소프라노), 김민수(첼로), 이지은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이어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를 첼리스트 나윤주와 피아니스트 최현

호가 들려준다. 마지막 곡은 신수경·윤상아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함께 연주하는 '피아노 듀엣을 위한 6개의 소품'이다.

26일은 '전주곡(Prelude)'을 집중적으로 들려준다. 김동준과 김민준이 '10개의 전주곡 Op.23'을 나누어 연주하며 박은식 전남대 교수는 '13개의 전주곡 Op.32' 전곡을 들려준다.

마지막날인 27일에는 김유상과 정승훈이 '6개의 악흥의 순간 Op.16'을 세 곡씩 들려주며 이철민이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42'를 선사한다. 마지막 곡은 최현호가 들려주는 '소나타 2번'이다.

전석 초대. 문의 010-9184-126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수만 작 '실랑이'

국내 대표갤러리에 지역작가 소개

동구 나인갤러리·예술공간 집 기획, 21~30일 미로센터 '나아가는 내일' 전...유지원·김25·김설아 등 14명 참여

'역량있는 지역 작가를 소개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상업갤러리에 지역 작가들을 집중 소개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수도권 주요 갤러리를 초청해 지역 현대미술을 새롭게 바라보는 '나아가는 내일-2023 작가 마케팅 쇼케이스'를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광주 예술의 거리 미로센터에서 개최한다. 전시는 동구가 구축한 글로벌 관계망 '온라인 월드맵(스페이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동시에 선보인다.

'나아가는 내일'은 예술에 관심이 높은 지자체와 지역화랑이 연대, 지역작가들의 글로벌 미술시장 진입 기회를 모색하고 지역 미술시장의 새로운 붐업을 일으키기 위해 기획했다. 지역의 대표적인 화랑인 '나인갤러리'와 '예술공간 집'이 공동 기획한 프로젝트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화랑협회(회장 황달성) 회원 갤러리와 박영덕갤러리, 학교재 갤러리, 웅갤러리, UM갤러리 등 30여 곳을 초청해 지역 미술을 적극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참여 작가는 지역 출신이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업 작가로서 국내 주요 상업 갤러리와 관계형성이 필요한 순수미술가 14명을 지역 갤러리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 참여 중인 유지원 작가와 올해 대학을 갓 졸업한 이소현 작가를 비롯해 김25, 김설아, 박수만, 윤상하, 윤준영, 이세현, 이인성, 정승원, 조정태, 조현택, 최재영, 하루.K 등 20대에서부터 50대 후반에 이르는 예술가들의 회화, 입체, 설치, 미디어 장르 총 5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 외에 지역 예술가들과 국내 주요 갤러리스트들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테이블'을 쇼케이스 오픈 후 별도 공간에서 운영하며 28일에는 광주미술문화연구소(대표 조인호)와 협력해 광주 현대미술의 현황과 시대성을 조망하는 라운드테이블 '시대를 품어가는 광주 현대미술'을 개최한다.

수도권 화랑들과 적극 교류를 추진한 양승찬 나인갤러리 관장은 "세계적인 미술축제인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지역 작가들이 더 큰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대지, 별, 바람, 그리고 생의 시간'

한희원 대작전, 21일~5월 4일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서양화가 한희원 작가는 지난 2019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일 년 간 머물며 작업에만 몰두했다.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이국적 풍경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의 작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서양화가 한희원 작가가 서울에서 대작전을 개최한다.

한 작가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인전 '사유의 집합, 한희원 대작'전을 갖는다.

'대지, 별, 바람, 그리고 생의 시간(Land, Star, Wind, and Time of Life)'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트빌리시 작업 이후 내면의 철학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담아낸 대작을 중심으로 선보인다.

200평 규모의 대형 전시실을 채우는 건 500호, 300호, 200호 등 대작을 포함한 50여점의 작품이다.

한 작가는 별, 바람, 대지, 하늘 등 인간에게 위로를

주는 일상적 소재를 통해 생의 감정을 한 폭의 시처럼 풀어냈다.

생에 대한 자각과 위로의 심성으로 그려낸 이번 작품들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위로와 안식, 구원을 주는 소재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 두터운 마티에르와 거친 화면도 눈길을 끈다.

첼리스트의 모습을 담은 '안식', 의자에 다소곳이 앉은 여인의 모습을 그린 '푸른 여인' 등 인물화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추상적 느낌이 돋보이는 '피안의 시간', '바람의 기도' 등도 눈길을 끈다.

'상처받은 별을 향해 걷다', '별의 흔적', '신화의 강



'피안의 시간'

과 별' 등 별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작품은 서정적이면서도 깊은 여운이 느껴진다.

전시 프리 오픈 21일 오후 3시~6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호남학 콜로키움' 출발...마한 문화유산 특성 다룬다

한국학호남진흥원, 5월 3일 스페이스아트센터...올 4회 개최

영산강 유역에는 다양한 마한 문화 유적이 산재한다. 특히 마한은 고분문화가 많이 발달했으며 청동기 유물을 다양하게 활용했다는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천득염)은 올해 '호남학 콜로키움'을 시작한다.

호남학 콜로키움은 지난해 문헌 속에 마한 역사를 찾아 전체 4회의 콜로키움을 시도민과 함께 진행하며 관심을 끌었다. 올해는 오는 5월 3일 광주문화재단 스페이스아트센터에서 제1회 호남학콜로키움

을 시작으로 호남지역 마한 문화유산의 특성을 다룰 예정이다.

소주제인 타문화권 문화유산과의 차이를 모티브로 진행되는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신홍남 호남문화재연구원장이 발표한다. 이어 이번기 전남문화재단 구소장, 임동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오동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세 명의 토론자가 좌장 임영진 마한 연구원장과 함께 토론을 펼친다.

콜로키움은 호남의 사상과 역사, 호남문화의 정체성, 호남인의 자존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호남학 관련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천득염 원장은 "이번 콜로키움은 그동안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수행한 과업 들을 중심으로 호남학을 둘러싼 담론을 함께 풀어보며 개성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올해 그 첫 단추로 마한의 역사를 모티브로 모두 4회를 개최해 마한에 대한 연구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임영진

'청소년 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기억책방' 21일 책담회, 전주원 문학평론가 초대

청소년 소설 연구가 미흡한 현실에서 청소년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억책방(동구 백서로 179, 2층)은 21일 전주원 문학평론가를 초대해 책담회를 갖는다.

'청소년 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책담회는 책을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 소설의 등장과 흐름, 특징 등을 살펴보는 자리다. 책담회 주인공은 광주교대 교수인 전주원 문학평론가.

선 평론가는 그동안 '대화적 관점에서의 소설교육' 외 110여 편의 논문을 집필했으며 그동안 '청소년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외 10권의 단행본을 펴냈다.

책담회에 앞서 오카리나스트 임서영이 오카리나 연주를 선보인다.

한편 기억책방에선 현재 김영길 사진전 '잃어버린 것과 잃어버리지 말 것'

이 열리고 있다. 사진전은 댐 개발로 인해 사라져가는 내성천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 14편을 전시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